2015년 2월 5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smba.go.kr

* 통신·방송·인터넷은 2월 4일(수) 12:00 이후 보도 가능

성장칭찬다리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보 도 자 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 담당부처 : 중기청 벤처투자과 • 과장 : 김성섭 (042-481-4383) • 사무관 : 이정례(042-481-4425)
기재부 산업경제과 • 과장 : 성창훈 (044-215-4530) • 사무관 : 김민형(044-215-4533)

중기청, 벤처·창업·재도전 우수사례집 발간
- "成큼 成큼_스타트업 성공 이야기"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13.5), 재도전 종합대책('13.10),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14.3)** 등 현 정부의 다양한 창업·벤처 활성화 지원을 바탕으로

○ 생활 속 혁신 아이디어나 **헬스케어, 에너지, 의료 등 새로운 산업분야에서 신기술·ICT 융합 등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기업**("생각의 각도가 다르다")과,

○ **빠른 시간에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였거나**("생각의 속도가 다르다"), **후배벤처 재투자 또는 재도전에 성공한 사례**(생각의 온도와 강도가 다르다")**등 30여 개 대표사례**를 묶어

– "성큼성큼 스타트업 성공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사례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 이들 성공기업들 대부분은 **창업시절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 남다른 기업가정신 등이 성공의 핵심요소**였으나, **적절한 시기 정부의 지원도 이들 기업의 성공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주요사례 소개

▸ **원가 절감하는 태양전지 신소재를 개발한 「엠페코」**

- **"주먹을 뺀어 하늘을 나는 만화영화 우주소년 아톰의 에너지는 뭘까"** 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작

- 중국, 대만 등 글로벌 태양광기업과 연간 1,000만불 규모 계약 체결, '12년 창업 후 3년 만에 매출액 60억원 발생

  * 매출추이 : ('12)15억원 → ('13)54억원 → ('14)60억원

  * 정부지원 : 기술신보 R&D개발자금 보증,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창업인턴제(우수인재 채용)

▸ **스파이더맨·헐크 제작으로 재도약에 성공한 「동우에이엔이」**

- 배트맨, 뉴 아기공룡 둘리, 닌자거북이 등을 제작한 **국내 1위 애니메이션** 제작사였으나,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던 중 '14.9월 **기업회생컨설팅 지원을 받고 재기에 성공**

- 미국의 드림웍스 등 세계 메이저 제작사들과 제휴를 통해 **20년 이상 축적한 애니메이션 노하우는** 물론 회사가 보유한 **배트맨 등 토종 캐릭터 온전히 보존**

- 美 **마블코믹스, 드림웍스 등의** 헐크, 스파이더맨 등과 같은 세계적인 작품 제작에 참여하면서 재도약

- '14.7월,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SICAF2014 애니메이션 어워드' 수상

  * 정부지원 : 중진공 기업회생컨설팅 지원(회생절차 신청부터 인가까지 신속한 상담 및 절차대행 등 지원)

▸ **부모의 마음으로 만든 어린이집 알림장「키즈노트」**

-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의 책가방에 담겨 있는 **'종이 알림장을 모바일로 바꿀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한 것이 창업의 계기
- 국내 14,000개(전체 5만여개의 28%) 영유아 보육기관과 제휴, 일본, 미국, 호주, 중국, 베트남 등 7개국에서도 사용 중
- 창업 3개월만인 '12.7월, **벤처1세대 창업가가 설립한 '케이큐브벤처스'가 3억원**을 투자, '14년에는 **5억원 후속투자** 유치
- '15년 1월 다음카카오에 인수되어 스마트 알림장 서비스를 넘어 '영유아 콘텐츠 유통플랫폼'으로 확대할 계획

* 정부지원 :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사업화 지원(TIPS) 프로그램을 통해 5억원 정부자금 유치

▸ **세계 최초 오타수정 앱(App)을 개발한「큐키」**

-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기술로 전환하여 사업화에 성공**

"업무상 스마트폰을 주로 다뤘는데, 오타가 너무 많았어요. 시간 낭비를 줄일 해결책을 고심하다 보니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 엔젤투자사 '프라이머'로부터 Seed 투자를 받아「큐키」를 공동창업, 지난 5월 일본 1세대 IT기업인 **산텍(SANTEC)**으로부터 **30만 달러(3억원)를** 투자를 유치
- 국내 몇 안되는 **기술기반 벤처기업**으로 국내에서만 **등록특허 5건과 출원특허**를 갖고 있으며 현재 해외시장을 겨냥해 미국 특허 3건, 일본 특허 2건 출원 중
- '14.9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beGLOBAL2014' Top 10 기업에 선정

* 정부지원 : '14.11월 '창조경제대상 슈퍼스타 V' 대회 1위 차지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사업화 지원(TIPS) 프로그램을 통해 5억원 정부자금 유치

□ 정부는 이러한 성공사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선도대학(28개) 등을 통해 유망한 창업기업을 지속발굴**하고, **투·융자, R&D, 판로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창업도약기(4~7년차)에 직면하는 '죽음의 계곡' 극복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며,

○ **서울(강남)을 중심으로 기술창업과 벤처투자 등이 결합된 Start-up 밸리*를 조성하여** 구로(ICT) 판교(글로벌벤처) 밸리와 연계를 강화하고

* 강남 테헤란로 인근에 대규모 창업보육공간(10,000㎡)에 창업팀 및 엔젤투자사 등이 공동 입주하는「(가칭)하이테크 창업 캠퍼스」설치('15.상반기)

- D-Camp, 마루 180, 구글캠퍼스 등 **민간의 스타트업 보육기관과도 연계**하여 혁신적인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 마루 180(아산나눔재단), 구글 캠퍼스(예정)

※ 별첨 : 성큼성큼 스타트업 성공이야기 (책자 및 파일 별도송부)

< 참고 >

최근 벤처·창업 및 투자동향

□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대책**('13.5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2월) 등을 통해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이 가시화**

○ **벤처기업 수는 1.13일 기준으로 3만개**(30,021개)**를 초과**하는 등 벤처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벤처기업 수(개) : ('98) 2,042 → ('06) 12,218 → ('10) 24,645 → **('15.1.13) 30,021**

○ **창업동아리 수도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하는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창업열기도 활발

* 창업동아리 수(개) : ('12) 1,222 → ('13) 1,833 → ('14) 2,949 (전년대비 60.9%↑)

□ 한국형 요즈마펀드, 청년창업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부의 벤처펀드 조성 확대에 부응한 민간 벤처투자도 확대**

○ 신규 벤처펀드 조성 : '14년 2조 5,382억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

* 민간출자 규모(억원) : ('12) 4,822 → ('13) 8,599 → ('14) 15,177

○ '14년 **투자금액 : 1조 6,393억원**으로 전년대비 18.4% 증가

- 기존 강세였던 **정보통신, 제조업 분야**에 더하여, **문화 콘텐츠, 생명공학 분야** 등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

* 업종별 벤처투자 추이: [문화콘텐츠] ('13) 20.6% → ('14) 27.3%, [생명공학] ('13) 10.6% → ('14) 17.9%

< 업종별 벤처투자 현황(억원, %) >

구분		정보통신	제조업	생명공학	문화콘텐츠	서비스	기타	합계
2013	금액	4,878	3,118	1,463	2,856	1,093	437	13,845
	(비중)	(35.2)	(22.5)	(10.6)	(20.6)	(7.9)	(3.2)	(100)
2014	금액	4,319	2,334	2,931	4,481	2,043	284	16,393
	(비중)	(26.4)	(14.2)	(17.9)	(27.3)	(12.5)	(1.7)	(100)